

30대 그룹 채용규모 줄어

전경련,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12만 6394명 예상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월부터 4월 18일까지 공기업과 금융그룹을 제외한 자산순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6년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중 21곳은 올해 신규채용을 작년 수준 이하로 뽑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 속에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까지 겹쳐지면서 그룹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용을 늘리는 그룹은 9곳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은 작년 13만 1917명보다 4.2% 감소한 12만 6394명으로 예상된다.

반면 총근로자 수는 작년 116만 5522명보다 1.6% 증가한 118만 4605명으로 집계돼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위 10대 그룹의 올해 채용규모는 7만 9144명으로 지난해 8만 440명보다 1.6%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12만 6394명)의 62.8%나 돼 10그룹이 그나마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30대 그룹은 지난해 12만 205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13만 1917명을 뽑아 연초 계획보다 8.1%(약 1만여명)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협력선언 이후 개별 그룹이 자체적으로 신사업 진출과 신규투자, 외국사업 확장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성주 기자



21일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맞손'

공동운항 노선 확대키로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양사간 공동운항(CODE-SHARE) 노선을 확대한다.

21일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열고, 공동운항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6월 7일부터 인천에서 출발하는 방콕, 오사카, 후쿠오카, 나리타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에 들어간다.

양사는 이미 지난 2013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로서는 처음으로 김포-타이베이 노선의 공동운항을 시작한 바 있다.

이로써 양사간 총 5개 노선(김포-타이베이, 인천-방콕,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인천-나리타)을 함께 운항하게 됐다.

이를 통해 양사간 운항하는 항공편 선택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시간에 따른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양 항공사는 공동운항 노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넓혀 나가 영업활동 확대에 따른 수익 확대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운항 협약을 통해 양 항공사는 향후 다른 노선의 공동운항 확대도 점차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정부, '맥주보이' 전면 허용 맥주업계, '야구팬심 쟁탈전' 돌입

정부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의 전면 허용 방침을 정하자 주류업계는 발빠르게 야구팬심 잡기에 나섰다.

맥주업계는 프로야구단과 제휴해 구단 로고 등을 새긴 '특별판 맥주' 등을 연고지 중심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구단과 제휴를 맺어 야구장 내 자사 맥주 판매에 주력하는 등 야구팬 유혹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야구장에서 한 시즌에 판매되는 맥주의 총량은 약 7만 상자(1상자=500ml 20병)로 추정된다. 국내 연간 맥주 판매량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하지만 맥주업계는 야구장 마케팅이 확보가 쉬운 맥주 소비층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야구팬심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맥주업체들은 구단별로 계약을 해 야구장 내에서 자사 맥주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올해에도 대표 브랜드 '카스'의 이름을 딴 카스포인트를 후원한다. 경기 중 발생하는 주요 결과를 점수로 환산, 투수와 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카스포인트'는 홈런과 타점, 승리, 세이브 등 항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선수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프로야구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단 로고가 들어간 스페셜 캔을 출시할 예정이다. 맥주캔 패키지 중앙에는 각 구단 로고가 패겨져 응원하는 야구구단의 스페셜 캔맥주라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금융거래 한도계좌'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22일부터 판매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액(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계좌로 장구나 자동화기기, 전자금융거래 등 거래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일명 '소액거래계좌'이다.

금융거래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거래사별로 1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1일 거래 한도는 은행창구인출 100만원, 자동화기기 인출·이체 각 30만원, 전자금융 이체 30만원으로 설정된다.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 한도 계좌로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대표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대상에서 제한된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 - OK저축은행 연계영업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OK저축은행과 연계영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업채널 확장 및 신규고객 확보 및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북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OK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편입 및 공동·연계 마케팅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심의 기업대출고객에 대한 연계영업과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추가한도가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한 연계지원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20일 부안소방서 격포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2016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진행됐다.

소방훈련은 컨벤션센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으로 시작됐고 직원들은 화재상황 전파와 직원 대피 유도, 중요문서 반출과 초기 화재진압 등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소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한 격포 119안전센터 김광천 센터장의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 /신광영 기자



간편하게 즐기는 지역 별미 '인기'

하림 춘천닭갈비 · 완도 전복미역국 · 안양 불고기 등

21일 맛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유통업체와 식품업체의 가정간편식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별미를 콘셉트로 한 제품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의 별미를 맛보고 싶지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반가워 할만한 제품들이다.

볶음밥용 소스가 별도로 들어있어 밖에서 닭갈비를 사먹을 때의 즐거움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춘천식 닭갈비'는 순한맛과 매운맛 두 가지 종류이며 전국 이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안양식 불고기가 편의점 식사로, 미니스틀 '안양식 바삭 불고기 도시락'

안양에서는 불고기를 국물 없이 바삭 구워서 고기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다. 편의점 미니스틀은 '도시락 팔도명물 열전 시리즈' 두 번째로 '안양식 바삭 불고기 도시락'을 출시했다. 주 메뉴인 바삭 불고기와 흑미밥, 해물경단구이, 호박볶음, 계란말이, 볶음김치, 후르츠 샐러드가 함께 들어 있는 제품이다. 미니스틀은 안양식 바삭 불고기 도시락 출시를 기념해 25~27일에 캠페인 또는 생수를 덤으로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완도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 롯데슈퍼 '시원한 전복미역국'

롯데슈퍼는 청정해역인 전남 완도의 특산품을 이용한 '시원한 전복미역국'과 '구수한 톳된장국'을 자체상품으로 출시했다. 시원한 전복미역국에는 완도산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으며, 구수한 톳된장국은 완도에서 생산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톳으로 만들었다. 원재료 확보 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모두 완도에서 이뤄져 더 의미가 있는 제품이다.

-부여 취나물, 강원도 곤드레 품이 살린 CJ '비비고 나물밥'

CJ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충남 부여의 취나물로 만든 '비비고 취나물밥'과 강원도 정선과 홍천 지역의 곤드레나물로 만든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을 출시했다. 비비고 나물밥 2종은 출시 6개월 만에 25억 원 가량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양념간장과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함께 들어있어 간단한 조리 후 비벼먹으면 여행지에서 잦아지는 나물밥을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익선=장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26일 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드관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드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